즉시 배포용: 10/15/2015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청소년들의 안전 운전 교육을 위한 'COACHES CARE' 캠페인 시작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운전자 안전 주간(Teen Driver Safety Week)의 인식을 넓히고 코치들을 배치하여 청소년들과 함께 도로 안전에 대해 상담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코치들이 공개적으로 학생 선수들과 함께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안전 운전 교육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인 *Coaches Care*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발단은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시행되는 젊은이들의 도로 안전 유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전국적인 노력인 국가 청소년 운전자 안전 주간(National Teen Driver Safety Week)과 일치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코치들은 젊은이들에게 중요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코치들이 청소년들에게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운전할 것을 독려하도록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바른 운전 습관은 불필요한 비극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모든 학교와 코치들이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Coaches Care*는 주정부 산하 교통안전위원회(GTSC)와 주 전역의 학교 간 협력의 결과입니다. 이 캠페인은 2014년에 시작한 위원회의 *No Empty Chair* 캠페인(자동차 함께 타기)과 2015년 발표된 *No Empty Chair Cops Care*(자동차 함께 타기 민관 지원) 이니셔티브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들 모두 경찰과 학교 자원들이 교내 행사와 졸업식 기간 동안 청소년들에게 안전 운전을 교육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이 캠페인의 일환인 홍보 포스터는 교내 라커룸, 교실, 학생들이 많이 붐비는 장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학교 관리자, 운동 감독 및 코치는 이메일(Todd.Engwer@dmv.ny.gov)을 통해 GTSC의 Todd Engwer에게 연락하여 무료 포스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Talking points(상담실)는 GTSC 웹 사이트 상에서 코치들이 청소년들에게 도로 위의 위험성을 알릴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국영고속도로 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5 to

Drive" 목록은 이 상담실에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음주, 문자 메시지, 안전벨트, 과속, 탑승인원 초과 등 청소년 운전자들에게 가장 위험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다섯 가지의 필수 규칙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코치는 이 사이트에서 젊은이들에게 안전하고 통제된 방식으로 각종 교통 상황에서 중대한 일이 닥쳤을 때 여유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고안된 졸업자 운전 면허(GDL) 법에 대하여 상기시켜 줄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뉴욕 보건부는 Upstate New York, 뉴욕시 및 Long Island에서 GDL과 관련하여 GTSC의 후원을 받아 사법집행기관 및 기타 당국에 대한 포켓 가이드를 제작했습니다.

뉴욕주 자동차 교통부 국장 대리인 Terri Egan은 "전국에 걸쳐 조직화된 운동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은 수천여 명에 달하기 때문에 코치들이 이러한 동맹을 유지함으로써 젊은 운전자들에게 긍정적인 생각과 운전 습관을 심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민들이 도로 안전을 지키는 것은 당국의 최우선순위이기에 청소년들이 도로 상에서 직면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중 대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인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젊은 운전자들과 함께 도로 규정을 준수하고 위험한 운전을 예방하는 훌륭한 전략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욕주 보건부 국장 Howard Zucker 박사는 "몇몇 성인들은 십대 운전자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코치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코치는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뉴욕의 젊은 운전자들에게 더 좋은 운전 습관을 심어주고 그러한 과정에서 어린 운전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자동차 충돌사고는 미국 청소년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부모, 교사, 코치 및 청소년들의 안전 운전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자들에게 더 없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지난 2월 Governors Highway Safety Association (주정부 산하 고속도로안전협회)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뉴욕주 고속도로 안전경찰 중 62%가 코치들이 자신의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답변했습니다.

청소년 운전자들은 특히 운전 미숙, 안전벨트 미착용, 산만한 운전습관, 신호 및 속도 준수 등의 요인들로 인해 운전 중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교통안전 관리 연구소(Institute for Traffic Safety Management & Research)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13년 사이

- 자동차 사망자의 약 13%는 연령대가 16-20세인 청소년 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운전자 부주의/주의 산만"은 연령대가 16-20세인 청소년 운전자와 치명적 부상 또는 충돌 부상을 당한 모든 운전자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습니다.

- 보고에 따르면 치명적 부상 또는 충돌 부상을 당한 16-20세의 청소년 운전자들은 "과속"으로 주행하는 모든 운전자들보다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두 배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추가 자원 강사에 대하여 코치 또는 교내 담당자는 여기를 클릭하여 추가 십대 운전자 안전 행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젊은 운전자를 위한 DMV 자원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